

남북 전통의학 용어의 비교고찰 연구

김상현 연구원¹, 박상영 책임연구원¹, 안진희 박사후연구원², 윤기령 박사후연구원², 정창현 교수^{3*}

1.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2. 한의학교전연구소
3.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terms of traditional medic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im Sanghyun¹, Park Sangyoung¹, Ahn Jin-hee², Yoon Ki-ryung², Jeong Chang-hyun^{3*}

1. Future Medic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3.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a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

Abstract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erms of traditional medic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headwords of the *Oriental Medical Terminology* and *Koryo Medical Dictionary* were compared. 64.6% of the *Oriental Medical Terminology* headwords are included in the *Koryo Medical Dictionary*. Two books hav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But the South Korean book contains more terms related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Qigong, and Chuna. In comparison, the North Korean book contains more terms related to folk medicine, books, and characters after liberation.

Keywords: Korean Medicine, Koryo medicine, Terms of Traditional Medicine, South Korea, North Korea

서론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의 큰 아픔이면서 동시에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도 큰 손실이다. 당연히 분야별로 각자 발전하는 면이 있겠지만, 인적·물적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생각

Correspondence: 정창현(Jeong Chang-hyun)

26 Kyunghee Daero, Dongdaemoon-gu, Seoul, Rep. of Korea

Tel: +82-10-2705-1044, E-mail: jeongch@khu.ac.kr

Received 2020-11-23, revised 2020-12-18, accepted 2020-12-21, available online 2020-12-23

doi:10.22674/KHMI-9-1-1



하면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인식이 각 분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고, 21세기 초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중 남북한의 전통의학 분야는 2001년 1차 방북을 비롯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의 실적으로 다양하게 협력해 왔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야기된 10여 년간의 공백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다행히 근래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어난 남북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를 위해 다시 힘을 쏟기 시작하였고,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최근 교류·협력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 고려의학의 교육, 의료시스템, 정부 정책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학술적 교류를 위한 전통의학 콘텐츠에 대한 분석은 최근 《남북전통약재지원사전》 외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통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학술 면에서의 분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술적 콘텐츠의 교류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용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물론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문화 전반에서의 용어 차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의 전통의학 분야 용어를 큰 틀에서 비교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자료 선정에 제약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대상은 2006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표준한의용어집》(이하 용어집)²⁾과 2005년 북한에서 간행된 《고려의학대사전》(이하 고려사전)³⁾이다. 자료 입수의 현실적인 제약 탓에 비대칭적 분량의 자료를 비교하게 된 한계가 있으나, 향후 남북 공동 전통의학 용어사전과 같은 방대한 작업에 앞서 대략적 현황 파악을 위한 파일럿 성격의 연구임을 일러둔다.

본론

1. 연구 대상 및 방법

기본적으로 《용어집》의 표제어 8,832 항목과 《고려사전》의 표제어 29,748 항목을 병렬로 비교하였고 데이터의 형식은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중복된 항목은 총 4,641 항목이고 통합표제어는 33,939 항목이다.⁴⁾ 다만 《용어집》의 표제어 중 《고려사전》과 중복되지 않는 것이라도 동의어가 있는 경우가 1,067 항목이다.

비교 고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중복되는 항목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다. 이 과정에서 《용어집》의 항목별 내용에 삽입된 ‘분류명’이라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그에 대응되는 《고려사전》의 항목별 설명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류명’을 기준으로 두 자료의 중복율을 도출하여 중복율이 낮은 항목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표 1. 《고려사전》, 《용어집》 간의 용어 비교 데이터 예시

통합표제어	고려의학대사전		표준한의학용어집			비고	동의어
	표제어	정의	표제어	분류명	정의		
도침요법 (挑鍼療法)	-	-	도침요법 (挑鍼療法)	[침구]	⇒ 도치법(挑治法)		
도침요법 (鉤鍼療法)	-	-	도침요법 (鉤鍼療法)	[침구]	⇒ 도침요법(陶鍼療法)	통용자	도침요법 (陶鍼療法)
도침요법 (陶鍼療法)	-	-	도침요법 (陶鍼療法)	[침구]	{침구} 도침(陶鍼)으로 체표의 특정한 부위를 알게 찢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통용자	도침요법 (鉤鍼療法)
(중략)							
동결견 (凍結肩)	-	-	동결견 (凍結肩)	[병증]	{재활} 통증과 운동성의 소실을 주증상으로 나타내는 질환으로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여 오십견이라고 하기도 함. 관절의 특성인 큰 운동성이 소실됨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유발.	용어집. 재활 분야에 대해 전통의학에 없는 신 용어가 추가된 사례	
동결어깨	동결어깨	귀침혈→견동.	-	-	-		
(중략)							
두항강통 (頭項強痛)	두항강통 (頭項強痛)	목덜미가 뻣뻣하고 아픈증. 6음의 사기가 태양경맥에 침입해서 생긴다. 일반적으로 태양표증때 나타난다. 오래된 풍습비증에서도 나타난다. 태양표증에는 땀을 내어 표를 푸는 방법으로 강활승습탕을 쓰고 풍습비증에는 풍습을 제거하면서 경맥을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미강활탕을 쓴다.	두항강통 (頭項強痛)	[병증]	{내과} 목덜미가 뻣뻣하고 아픈 증.		
두항경 (頭項硬)	두항경 (頭項硬)	경경 5경의 하나. 목덜미가 뻣뻣하여 잘 쓰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	-		
두항연 (頭項軟)	두항연 (頭項軟)	두연, 향연 5연의 하나. 선천적으로 양기가 부족하거나 기혈부족에 의하여 생긴다. 목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거나 놀리지 못한다 온신보비, 익기승양하는 방법으로 보중익기탕에 보신지황환(륙미지황환에 육용, 쇠무릎풀을 더 넣은것)을 같이 쓴다.	두항연 (頭項軟)	[증상]	{소아} 오연(五軟)의 하나. 목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거나 놀리지 못하는 증상. 선천적으로 양기가 부족하거나 기혈부족에 의해 생긴다.		

2. 분류체계 비교

《용어집》의 경우 범례에서 21 가지의 분류명이 제시되어 있고, 각 표제어마다 한 개 이상의 분류명이 붙어 있고 추가로 용어 관련 학회명이 병기되어 있다. 《고려사전》의 범례에는 별도의 분류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표제어의 설명 초반부에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표제어의 양과 공식적인 분류명의 유무에 따른 자료의 비대칭이라는 한계 때문에 대등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단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용어집》의 분류명에 대응되는 《고려사전》 표제어의 설명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용어집》 분류명과 《고려사전》 표제어 설명 비교

표준한의학용어집 분류명	고려의학대사전 표제어 설명 및 특징
약물	고려약, 고려약처방 등
포제	고려약법제방법
경혈	경맥에 소속된 혈
기혈	경외기혈, 머리침혈, 귀침혈, 발침혈, 손침혈 등
경락	경락, 경락리론 등
침구	침놓는 방법, 침보사법, 침구치료 원칙, 침자극방법 등
추나	안마법, 수법, 자극수법 등
기공	옛날에 양생법 등 (주된 설명어 없음)
치법	치료법, 외치법 등
생리	(주된 설명어 없음/동의보감 등 인용)
병리	(주된 설명어 없음/동의보감 등 인용)
병증	병증, 옛날병명 등
증상	(주된 설명어 없음)
징후	맥상 등 (주된 설명어 없음)
변증	(주된 설명어 없음)
진찰	맥상, 망진내용 등
운기	운기말마디 등
사상	4상인병증 등
기구	의료기구 등
해부	(주된 설명어 없음)
기타	(이상의 다양한 설명어 포괄)

기본적으로 《용어집》의 표제어가 《고려사전》과 중복되는 경우(중복되지 않더라도 동의어가 있는 것 포함)가 약 64.6%이기에 비교 과정에서 《용어집》의 분류별 표제어에 직접 대응되는 《고려사전》 표제어가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상, 기공, 추나, 변증, 침구, 기구에 해당하는 《용어집》의 표제어는 《고려사전》에 없는 것이 더 많았다.



표 3. 《용어집》 표제어의 《고려사전》 중복율

분류	미중복 항목 수	용어집 항목 수	중복율(%)	분류	미중복 항목 수	용어집 항목 수	중복율(%)
사상	201	224	10.27	병증	1,159	3,644	68.19
기공	49	57	14.04	약물	263	914	71.23
추나	92	136	32.35	포제	27	106	74.53
변증	94	148	36.49	징후	33	163	79.75
침구	370	587	36.97	기혈	11	61	81.97
기구	24	40	40.00	경락	22	127	82.68
치법	209	464	54.96	생리	44	272	83.82
증상	152	385	60.52	해부	8	67	88.06
기타	47	126	62.70	운기	4	37	89.19
진찰	119	340	65.00	경혈	44	481	90.85
병리	208	635	67.24				

표 4. 《고려사전》의 고유 표제어 예시

통합표제어	고려의학대사전		표준한의용어집		
	표제어	정의	표제어	분류명	정의
강주언(姜周彦)	강주언(姜周彦)	(1897. 1. 2~1973. 7. 25) 고려의사. 그는 자습으로 17살에 고려의사 자격을 받았고 민간의사로 일하면서 점차 지식과 경험이 겸비된 고려의사로 되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 고려의학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고려의학부문에서 환자치료사업에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다 바치었다. 주체47(1958)년부터 의학과학연구원 동방의학연구소와 동의학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고려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고려의사를 양성하는 사업에 모든 정열을 다 바쳤다. 그는 《동의학개론》, 《동의처방학》 등 고려의학책들을 편찬하는 사업, 고려의학고전들을 번역하는 사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주체54(1965)년에 고려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	-	-
골반강림과절(骨盤腔淋巴節)	골반강림과절(骨盤腔淋巴節)	발반사구역. 발목관절앞에서 거골, 주상골사이의 우묵한곳이다. 엄중, 열나기, 다리부종, 발목이 붓고 아픈데, 낭종, 근종, 면역기능저하, 종양 등에 쓴다.	-	-	-
반삭법(攀索法)	반삭법(攀索法)	정골법의 하나. 골절되어 등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바로잡기 위하여 쓰는 방법이다. 천으로 만든 띠를 높은 곳에 매고 양손으로 틀어쥐게 한 다음 두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고 의사가 손으로 정복하는 방법이다. 흉추, 요추골절 때 흔히 ~을 쓴다.	-	-	-
《조선민간료법집》	《조선민간료법집》	우리 나라에서 오랜기간 써오고있는 민간료법들을 종합하여 높은 참고서[저자 조창기, 박위근, 강석, 주체92(2003)년 출판]. ~은 2개편과 부록으로 되어있다. 1편 민간료법의 종류와 건강장수약에서는 민간료법의 종류 8가지와 그의 맞춤증들을 주고 민간에서 흔히 쓰고있는 건강장수약 19가지를 주었다. 2편민간료법에 의한 질병치료에서는 17개장으로 계통별, 전문과별로 구분하고 그에 속한 213개의 질병, 증후, 고려병증들에 대해 민간료법으로 치료할수 있는것들을 주려서 주었다. 매 개별질병, 증후, 고려병증들에서는 개념을 간단히 주고 약물치료, 찜질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한증치료, 자극치료, 자연치료, 운동치료들로 갈라 해당한 민간료법의 내용을 주었다. 부록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식료품,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섞어서 안되거나 삼가해야 할 민간약재와 음식감, 우리 나라 산과 들에서 자라는 독있는 식물과 48가지 몸에 나타나는 반응절(압통절), 손자극주의, 발자극부위 등을 그림과 배합하여 주었다.	-	-	-



역으로 《고려사전》에 존재하지만 《용어집》에는 없는 표제어에 반사구역, 정골법, 경외기혈, 해부명, 고려약처방, 고려의사, 중의사, 고려의학고전, 중의학고전 등의 설명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외기혈, 해부학용어, 처방명, 인명, 서명에 대한 표제어는 《용어집》의 표제어 선정 방침에서 제외한 것들이지만 반사구역, 정골법은 실제 활용과 관련된 용어로서 국내에서 공인되어 사용되는 것과 차이 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재이름과 병증명의 우리말 표기가 《고려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3. 표제어 형식 비교

1) 독음 및 표기의 차이

《용어집》의 표제어 중 《고려사전》과 겹치지 않더라도 동의어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12%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표제어의 표기에 따라 다른 표제어로 분류되는 것이 상당 분량이라는 것이다. 한자 독음이 달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독음이 같더라도 다른 한자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독음이 달라지는 경우 중 아예 읽는 음이 다른 경우가 있고, 두음법칙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경우가 있다. 한자의 표기가 다른 경우 중 통용하는 이체자인 경우가 있고, 이체자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다. 독음이나 표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비교표에서 동의어가 있는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중복을 산정에는 포함되었다.

표 5. 《용어집》, 《고려사전》의 독음 및 표기 차이 예시

		표준한의학용어집	고려의학대사전
한자 독음이 다른 경우	읽는 음이 다른 경우	수(俞) 수(嗽) 폐(肺)	유(俞) 소(嗽) 폐(肺)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로 음이 다른 경우	냉(冷) 육혈(衄血) 응폐(癰閉)	랭(冷) 녹혈(衄血) 퉁폐(癰閉)
한자 표기가 다른 경우	통용하는 이체자로 표기한 경우	간(臍) 관(關) 맥(脈)	간(痲) 관(関) 맥(脉)
	이체자는 아니나 같은 의미로 표기한 경우	소부(少府) 수전(手顛) 중갈(中囑)	소부(小府) 수전(手戰) 중갈(中喝)

2) 정렬 순서

표제어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표제어 정렬 순서도 차이 나는 부분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가나다순과는 다르게 《고려사전》의 정렬 순서는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과-하-쌍 자음(ㄱ-ㄴ-ㄷ-ㄹ-ㅁ-ㅂ-ㅅ-ㅈ-ㅊ-ㅋ-ㅌ-ㅍ-ㅎ)-아 순으로 되어 있고, 모음의 순서도 겹모음이 뒤에 나오는 형태이다.



4. 고찰

기본적으로 《용어집》의 표제어 중 《고려사전》과 중복되는 것이 64.6%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로 차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자료 성격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어집》은 ‘현재 한국에서 공인되어 사용되는 한의학의 학술용어’라는 기준으로 출간되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분과학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배제되었고 타 학문 용어·처방명·인명·서명·학과명 등은 수록하지 않았기에 표제어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에 비해 《고려사전》은 제목 그대로 ‘사전’의 성격이기에 고려의학과 관련된 제반의 용어가 표제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중복되지 않더라도 《용어집》의 표제어 선정 방침 상 배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고려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들이 남한의 한의학 용어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는 대체로 중복되거나 남한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많다고 할 수 있고, 그중에 중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고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상’의 경우 《동의수세보원》에 나오는 다양한 용어를 《용어집》에 수록하고 있지만, 《고려사전》에는 관련 표제어가 매우 적다. 특히 《고려사전》에서는 ‘4 상의학’이라고 표제어를 붙이면서 “체질분류는 일련의 부족점과 제한성이 있으므로 비판적견지에서 치료사업에 적용해야 하며 과학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2000 년도 중반에 간행된 사전의 표제어 분량으로 현재 그 위상을 가능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근래에 중국에서 사상의학을 ‘조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고 홍보하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 사전에서 사상 관련 표제어의 규모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⁵⁾ 또 《용어집》의 용어 선정 방침 중 “재활, 추나, 예방의학 용어의 경우 분과학회의 특성상 신조어와 외래어가 많으며 … 분과학회에서 통일된 용어만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전제에 맞게 ‘기공’, ‘추나’로 분류된 용어가 《고려사전》과 겹치지 않았다. 역으로 《고려사전》에 등장하는 신요법 관련 용어, 민간요법 관련 용어 다수는 《용어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인물명과 서적명은 《용어집》의 표제어 선정 방침에 빠진 것이긴 하지만 해방 후의 인명·서명은 국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분단 이후 이루어진 각자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임상이나 연구분야(의사학 등)에서 활용될 수 있기에 향후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약재이름이나 병증명에 대한 우리말 표기가 《고려사전》의 표제어에 수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말 표기 표제어를 한자어의 대표 표제어로 연결해 두었다. 직접 활용하는 대표 용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최근 간행된 《남북전통약재기원사전》에 따르면 북한의 약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 제 8 판의 표제어는 모두 우리말 표기라고 하였다.⁶⁾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병증명 등에서도 우리말 표현이 익숙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적 교류를 위해 《고려사전》의 우리말-한자어 표제어를 별도로 추출하며 참고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단으로 인해 사회, 문화 영역에서 달라진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향후 협력과 교류를 위해서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학문의 영역 또한 단절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공유했던 탓인지 다행스럽게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많이 보인다. 그렇다고 안심만 할 수는 없는 것이 한의학의 영역도 날로 새로워지는 만큼 남북의 간극이 커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역량도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한의학은 순수학문에 그치지 않는 실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력과 교류를 위한 기초 작업이 실제 활용의 교두보가 된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간극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이해를 돕는 자료 작성이 이루어져야 남북간 전통의학 교류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결론

남북 전통의학 용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한의학용어집》과 《고려의학대사전》의 표제어를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용어집》 표제어의 64.6%는 《고려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둘째, 《용어집》 표제어 중 사상, 기공, 추나 분야는 《고려사전》과의 중복율이 낮다.

셋째, 《고려사전》에 《용어집》에는 없는 신요법, 민간요법, 해방 후 저서 및 인물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남북 전통의학 용어는 차이보다 유사성이 많지만 각각의 발전 과정에서 유입된 것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호혜성이 확보된 남북 공동 전통의학 용어사전과 같은 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남북 전통의학 용어표준화 기반구축 사업(KSN20134244)’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김동수 외 5인.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2. 한의학용어제정위원회. 표준한의학 용어집, 1 판. 서울:대한한의학협회. 2006.
3. 김동일 et al. 고려의학대사전. 평양:의학과학출판사. 2005.
4. 정창현 외 5인. 남북 전통의학 용어 정리 위탁연구 보고서. 2020.
5. 이제민. 중의학에 한의학 편입 대책 시급. 민족의학신문. 2008-07-05. Available from: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32> (accessed 2020-11-16).
6. 최고야. 남북전통약재기원사전. 전주:도서출판 우석. 2020.

